불복·재심·고발…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점입가경'

고무줄 잣대에 불투명 공천 관리
패배한 후보들 반발 속출 후폭풍
국회의원들 '자기 사람 심기' 한몫
혁신 공천 공염불 지역민 신뢰 잃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후보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보니 공천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승복은커녕,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는 후보들의 재심과 이의신청, 고발과 수사 촉구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락가락한 공천 잣대와 불투명한 공천 관리 등도 한 몫 하면서 공당이 축제로 이끌어야할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되면서 쇄신과 혁신 공천은 공염불이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8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목포와 영암을 비롯한 22개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가 모두 발표됐지만, 경선에 패한 후보들의 반발이 속출하면서 후폭풍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수시장의 경우 정기명 변호사가 권오봉 현직 여수시장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지만, 권 후보측은 불공정 경선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정기명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60.43%의 득표율을 얻었고 권 시장은 39.57%를 기록했다. 권 후보측은 "경선과정에 중복 투표 발생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한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순천시장 경선은 경찰과 선관위 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오하근 전 도의원이 50.17%의 득표율로 현 시장인 허석(49.83%) 후보를 0.34%포인트 차이로 제친 것으로 발표된 뒤, 허 후보측이 이중 투표 유도 및 권리당원 불법 관리 의혹 등을 내세우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목포시장 경선도 8000명 가량의 입당원서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선 방식이 100% 시민여론조사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빚은 데 이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제명 처분된 박홍률 후보가 경찰의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세워 민주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원 이중 투표' 논란으로 '100% 일반 당원 여론조사' 방식으로 재경선까지 치러진 영암군수 경선도 후폭풍이 거세다. 재경선 결과 우승희 예비후보가 56.09%를 얻어 현직 군수인 전동평 예비후보(43.91%)를 누르고 승리했다. 하지만, 경선에 이어 재경선에서 다시 패한 전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 이중 투표를 지시·유도한 혐의 등으로 우 예비후보를 영암군 선관위에 고발했다.

강진군수 경선은 강진원 전 군수가 48.81%로, 현직인 이승옥 군수(40.95%)를 7.86% 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이 군수측이 경선 전부터 객관적 평가로 보기 어려운 '가·감점' 배점 기준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어떻게 전개될 지 미지수다. 지난 선거에서는 강 전 군수가 가·감점으로 이 군수에게 패한 바 있어 사실상 가·감점이 승부를 갈랐다는 게 지역 정치권 평가다.

담양군수 경선도 여론조사 왜곡 의혹 논란 속에서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59.62%)이 최화삼 전 담양군의회 의장(50.32%)을 누르고 후보로 결정됐지만,최 예비후보 측이 공천과정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 예비후보 측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불법·해당 행위자로 지목돼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후보가 어떻게 중앙당 비대위에서 살아나 경선 후보로 결정됐는지 그 배경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잘라버린다는 녹취 파일이 돌면서 해당 지역위원장의 경선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수 경선에서는 최옥수 무안군상공인회장(59.38%)이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원(50.52%)을 누르고 후보로 결정됐지만 최 후보의 경우 최초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다가 재심을 거쳐 경선에 나서 후보까지 확정됐다는 점에서 허술한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준 결과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장흥군수 경선도 재심을 거쳐 김성 전 장흥군수가 후보로 확정됐지만 다른 당원 후보들에 비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는 후보에게 공천을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완도군수 후보에는 현직인 신우철 군수가 뽑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사저 구경하는 시민들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귀향을 이틀 앞둔 8일 문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시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복지부로…국힘, 여가부 폐지안 제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개정안 제출 후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선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에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권력기관 개혁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미완의 아쉬움 남기고
문 대통령 오늘 임기 마무리…'국민께 감사' 연설후 마지막 퇴근길

'5년 만에 정권 내준 정부' 불명예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후 양산으로

2017년 5월 탄핵 정국을 바탕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임기를 마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인 최근까지도 40%대의 지지율로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정부'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이 검찰 개혁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양날의 칼이 됐다.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으나 딸의 부정 입학 문제를 계기로 '조국 사태'로 번지는 등 정권에 큰 타격을 입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등으로 이어지는 검찰 개혁은 마무리됐지만 검찰 총장 출신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19는 문재인 정부의 명암을 반영했다. 초기만 해도 확진자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K-방역'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번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로 K-방역의 둑은 힘없이 무너졌다. 결국,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이 방역에 집중 되며 다른 수많은 국정 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이슈는 부동산 문제다. 20 차례가 넘는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까지 겹쳐 부동산 문제는 민심을 돌아서게 만들었고 정권재창출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김 위원장과 총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 관계를 선언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9·19 군사 합의라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지며 한반도 평화는 성큼 다가온 듯이 보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카드를 마지막까지 제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불어 9일 자정에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8일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조용히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하게 될 연설은 지난 5년간의 소회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등을 면담한다. 이날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에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 퇴근길에 나선다.

김정숙 여사와 관저를 출발해 청와대 정문으로 나와 분수대까지 걸어 내려가며 마지막 퇴근길을 마중하러 나온 시민 등에게 인사말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사저로 향한다. 낮 12시 서울역 광장에 도착해 KTX를 타고 오후 2시 30분께 울산 통도사역에 내린 다음, 오후 3시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